

# 나주 버스 행선지 '너무 헷갈려'

나주시 교통정책이 고령화가 심한 노총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3월 이용객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행선지 식별이 쉽도록 6개 구역으로 나눠 노선번호를 변경, 운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나주교통은 광주와 나주 각 지역을 오가는 150번과 180-1에서 180-5번까지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화된 노선과 운전 기사들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객들은 버스 행선지 식별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운영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같은 번호인 버스일지라도 시간대에 따라 노선이 일부 구간에서 2~3

## 노선 글씨 작아 노인들 행선지 식별 어렵고

## 같은 번호 시간대별 노선 달라 불편 겪기도

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선번호는 쉽게 눈에 띠지만 작은 글씨로 쓰인 행선지는 일일이 확인하고 타기가 쉽지 않다.

광주와 나주 등강면을 오가는 180-1번의 경우 영산포 왕곡입구 삼거리에서 왕곡쪽으로 우회전하는 노선과 영암방향 13번 국도로 직진해 반남면을 경유하는 2개 노선으로 갈린다.

광주~나주간으로 운행하는 180-2

번은 남평에서 밤실마을, 화순 중장터, 다도댐 상류 산판마을 등 3개 노선으로 갈리고, 180-5번 역시 나주 당시면에서 문평면, 다시 백동리, 함평나산 등 3개 노선으로 갈린다.

이와 같은 방식의 버스운영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노총현실에 비춰볼 때 이용객들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다.

광주에서 나주 왕곡 등수오랑 농공

단지로 출퇴근하는 박모(여·31)씨는 “새벽에 왕곡신반남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며 “하물며 젊은 사람도 이런 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빠르게 달려오는 버스의 행선지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고 주장했다.

나주교통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두고 시와 협의해 각 행선지 표시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행선지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완도 추석 판촉 '대박'

## 농수특산물 29억 매출

완도군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지역 특산품 판매 활동을 벌여 29억 원이치를 팔았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청정해역, 건강의 삶’ 완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해 추석 전 한 달간 특별판매 기간으로 정하고 대도시 소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군은 이 기간에 대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농수산물 판촉전에 지역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고, 지역 특산품의 우수한 맛과 질을 직접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지난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가위 명절 선물 산업전’을 시작으로 ‘천안 웨딩시품 엑스포’, 서울광장의 ‘도시와 농어촌의 농수특산물장터’ 등 대도시 특관활동에 참여한 데 이어 서울 강동구·노원구·강남구, 대구 수성구 등 차마·우호협력 단체가 주관하는 완도 특산품 직거래 장터에 청정 진미 완도전복(■) 등 군내 유동업체가 참여해 4억 6천 7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특히 군 산하 600여 명의 공무원은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24 억 3천 300만원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앞으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세계 이마트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여 개 점포에서 완도 수산물 특설 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칼슘의 왕’ 멸치 말리기

초기을 날씨 속에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주민들이 14일 선착장에서 멸치를 말리고 있다. 올해 멸치잡이는 해파리 떼 출몰 등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었지만, 가격이 2kg 한 포대에 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

<완도군 제공>

## 함평, 국내산 딸기모종 지원 ‘호응’

### 로열티 분쟁 대비… 고랭지 우량 모종 지원 나서

함평군이 외국산 딸기 품종의 로열티 지급에 대비해 국내산 고랭지 우량 딸기모종을 지원해 재배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홍)에 따르면 지난달 군비 50%를 보태 관내 20개 딸기 재배농가의 2

㏊의 면적에 고랭지에서 생산된 딸기 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딸기모종의 30%가 고사하는 등 생산에 실패하는 농가가 늘어나자 경영진 단을 통해 경남 함양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우량 모종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한 고랭지 모종은 현재 까지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게 나타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재배농가로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딸리를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청연구원이 이삼용 회장을 “그동안 딸기모종을 정식하고 나면 너무 많이 고사해 새롭게 미워심기하느라 진땀을 허셨다”며 “이번에는 딸기모종이 빠르게 활착하고 있어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우량모종 20만 본 구입을 지원했다.

&lt;p